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최재남*

— <차 례> —

1. 서언
2. 〈훈민가〉 보급의 경과
 - 2.1 『경민편』과 〈훈민가〉 합편의 과정
 - 2.2 〈훈민가〉의 보급과 한역
3. 〈훈민가〉의 구성과 그 의미
4. 작가와 작품의 효용에 대한 이해
5. 소결

1. 서언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이 지은 〈관동별곡〉 등의 가사와 〈훈민가〉 등의 시조를 중심으로 한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평가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지대한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¹⁾ 이러한 경향은 개별 작품론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²⁾ 대부분 당대와 후대의 소견 논거에 바탕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욕적

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의 경향에서 드러나듯이 실상에 바탕을 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와 함께, 실제 주변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점검하면 작가에 대한 인물 평가에 대한 이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대와 후대에 정철의 인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의 문학 작품을 통하여 사람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훈민가〉가 지닌 의미를 백성을 깨우치고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두고, 이러한 내질이 백성을 사랑하는 벼슬아치의 기본 지향과 맞물린다고 파악하면서, 이러한 지향이 정철 개인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훈민가〉가 『경민편』과 함께 엮여지면서 『경민편』을 엮은 김정국의 사람됨과 같은 층위에서 정철을 평가하기 위하여 〈훈민가〉를 보급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에 대한 친밀한 이해를 통하여 그 작품을 남긴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하려는 방향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훈민가〉는 〈권민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민편』은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35세인 중종 14년(1519)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법을 집행함에 앞서 인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감발흥기(感發興起)하게 하고자 엮은 교훈적인 책이고, 〈훈민가〉는 정철이 45세인 선조 13년(1580)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민생과 일용에서 풍송하게 하여 감발하게 한 시조 작품이다. 엮은 시기와 지은 시기에 거리가 있고 방법에 있어서도 추본거리(推本舉理)³⁾와 심상풍송(尋常諷誦)⁴⁾라는 차이는 있어도 감발(感發)하게 하는 목표는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 1) 조윤제, 『송강과 송강가사』, 『조선시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방종현, 『송강가사』, 정음사, 1948; 김사엽, 『정송강연구』, 계몽사, 1950.
- 2) 김홍규, 『송강시의 언어』, 고려대출판부, 1993;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 사적 탐색』, 월인, 2002.

3) 『警民編跋』

4) 『畸翁小錄』

그런데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두 글이 『경민편』의 보급을 위한 언해와 함께 하나로 묶어지면서 합편으로 엮어지게 되었고, 조선후기에 이것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이러한 흐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작품 자체가 가진 의미와 함께 작자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치적인 태도에 대한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두 예문에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함경도 관찰사 윤지선(尹趾善)이 장계하여, 선정신 김정국이 지은 『경민편』과 고 상신 정철이 지은 〈훈민가〉를 다수 인출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부녀들로 하여금 심상하게 외우고 익히도록 하여 사모하여 본받게 하는 바탕을 삼게 하며, 조금이라도 올바른 행동이 있는 자는 방문하여 더러는 식물을 지급하고 더러는 연역을 줄여 주도록 청하자, 비국에 내려 복주하게 하고 그것을 허락하였다.⁵⁾

(나)

고 상신 유성룡(柳成龍)의 손자인 전 교관 유후상(柳後常)이 그의 조부를 위해 변무하겠다고 하며 상소하기를,

“안방준(安邦俊)은 바로 고 상신 정철(鄭澈)의 문도인데, 『기축위록(己丑僞錄)』을 짓기를, ‘최영경(崔永慶)을 죽인 일은 선조(先祖)의 신 유성룡이 실지로 주장한 것이다.’ 하여, 성조(聖祖)께서 정철을 죄주셨던 분부를 삭제(刪改)하고, 선신(先臣)이 정승을 제배(除拜)한 일자를 진퇴하여, 정철은 퍼주고 선신에게는 모함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정철을 위해 편을 드는 사람들이 그의 저서를 기쁘게 여겨 인출하여서 중외에 배포하고, 안방준의 사당을 세워 높이고 있으니, 사림들의 통탄과 한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의 말을 받아들여, 안방준의 사우를 헐도록 명하였다.⁶⁾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훈민가〉의 작자인 정철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정

철의 정치적 행적을 포함하여, 이러한 논쟁이 재연되던 당시의 정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과 예술에 대한 평가의 잣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예술 작품을 중심에 놓고 이해할 것인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대립적인 시각을 포함하여,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예술 작품을 활용하는 사례와 그에 대한 반론까지 함께 읽어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훈민가〉가 지닌 의미와 〈훈민가〉의 작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보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검토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와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의 준거 설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훈민가〉뿐만 아니라 정철의 다른 국문 작품도 이러한 논의에 포함시켜야 마땅하겠지만 실제 논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훈민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훈민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훈민가〉 보급의 경과

2.1 『경민편』과 〈훈민가〉 합편의 과정

김정국의 『경민편』과 정철의 〈훈민가〉가 한데 엮어지게 된⁷⁾ 것은 서언에서 제기한 것처럼 감발(感發)이라는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 상차하기를,

7) 『경민편』과 〈훈민가〉와의 관련에 대한 서지적 검토는 심재완, 「경민편과 송강가사」,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90~97쪽 참조.

5) 『숙종실록』 권12, 7년[1681] 7월 21일(임신).

6) 『숙종실록』 권24 18년[1692] 4월 14일(계사).

“신이 병신년 가을에 예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일찍이 탐전에 나아가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이래로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날이 갈수록 더욱 투박해지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소위 『경민편(警民編)』은 바로 기묘(己卯) 명신(名臣) 김정국(金正國)이 해서(海西)의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책으로서 백성을 깨우치고 풍속을 교화시킴에 있어 조금 보탬이 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 책을 제로(諸路)에 간행 반포하소서.’ 하여 다행히도 윤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원본을 두루 구해도 얻지 못하다가 오래 된 뒤에야 해서에서 얻었는데, 언해(諺解)가 없으면 궁벽한 시골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마침내 그 원본을 사용하여 교열하고 번역하는 한편, 진고영(陳古靈)과 진서산(眞西山)이 세속을 교화시킨 여러 편(篇)을 그 아래에 붙이되 간간이 요약 정리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선묘조의 상신(相臣) 정철(鄭澈)이 지은 <훈민가(訓民歌)> 속에 첨부해 기록된 것을 얻었으므로 시골 부녀자들로 하여금 이를 늘상 암송하게 함으로써 감발(感發)되고 징계되는 바가 있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신이 직책을 떠나 미처 간행 반포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늘 처음에 건의하였던 것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근래 듣건대 윤리 기강에 관련된 변이 더러 도성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상께서 경연 석상에서 백성을 이끄는 방도가 어긋난 점을 깊이 우려하며 탄식하셨다고 하기에, 신이 이에 더욱 감개한 심정을 가눌 수 없어 감히 베껴 써서 남궁(南宮)에 보내는 바이니, 이것을 두루 모든 도에서 간행한 뒤 안신(按臣)으로 하여금 열읍에 분부하고 민간에 널리 반포하며 진정으로 고유(告諭)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선하게 되어 죄를 멀리하고 야박한 풍속이 후하게 되도록 한다면, 그런대로 백성의 풍속이 점점 변하여 풍속을 둔후하게 하려는 우리 전하의 뜻에 우리러 부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저 정치의 근본을 논할 때 풍화(風化)가 급선무인데, 반드시 적합한 방법으로 이끈 뒤에야 사람마다 흥기하여 본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 백성을 교화시켜 복종시키려 한다면, 이어져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메아리를 찾으려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후략)…”

하니 답하기를,

“경의 차사(筓辭)를 보건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서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해조로 하여금 차사대로 시행하게 하겠는데,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도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된다.”

하고, 그 차자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곧바로 간행하여 중외에 널리 반포하기를 청하니, 따랐다.⁸⁾

이에 앞서 이후원이 『경민편』의 보급을 제기⁹⁾한 바 있어서, 『경민편』과 <훈민가>의 합편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후원(李厚源, 1598~1660)을 비롯하여 서인·노론계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철의 문집 간행¹⁰⁾과 <훈민가>의 보급¹¹⁾에 앞장선 사람들도

-
- 8) 『효종실록』 권20, 9년[1658] 12월 정해, 『국역 효종실록』.
 - 9) 『효종실록』 권17, 7년[1656] 7월 갑술, 『국역 효종실록』.
 - 10) 정철의 문집인 『송강집』 간행의 경위를 보면, 『원집』은 광해군 14년(1622)에 신흙(申欽)이 서를, 인조 11년(1633)에 이정귀(李廷龜)가 서를 쓰고, 인조 10년(1632)에 장유(張維)가 후서를, 인조 11년(1633)에 김상헌(金尙憲)이 발을 썼다. 그리고 송시열(宋時烈)이 숙종 즉위년(1674)에 중간의 발을 썼다. 『속집』은 숙종 3년(1677)에 송시열이 발을 쓰고, 『연보』는 숙종 즉위년(1674)에 송시열이 발을 썼다. 한편 행장은 김집(金集)이, 시장은 김수항(金壽恒)이, 신도비와 묘표는 송시열이, 전은 신희이 각각 찬술하였다.
 - 11) 『송강집』과 달리 정철의 국문 작품을 모은 『송강가사』는 북관에서 가곡을 간행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숙종 16년(1690)에 거성(車城:長鬐)에서 이선(李選)이 주희가 『초사집주』를 엮은 유의를 따라 다시 엮었고, 숙종 24년(1698) 3월에 현손천(海, 1659~1724)이 재종형 호(滸, 1648~1736)가 의성현감[1696년 5월~1698년 1월] 때에 간행한 것과 집안에 전승된 것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종중조 기옹(畸翁:弘溟, 1565~1626)의 측자(側子) 리(洩)가 손수 베낀 것과 할아버지 포옹(抱翁:瀆, 1600~1668)이 베껴간 것과 견주어서 자형인 이정하(李徵夏, 1656~1727)가 황주통관 때에 간행한 것과 함께 정리한 것을, 영조 23년(1747)에 오대손 성주목사 관하(觀河)가 추기하여 간행한 것이 있고, 영조 44년(1768)에는 후손 실(실실, 1701~1776)이 봉산(鳳山)의 종인(宗人) 내하(來河)가 가지고 온 관북본(關北本: 滸가 1704년 함경도관찰사로 있으면서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관서에서 엮은 것이 전한다. 이렇게 보면 북관본, 의성본, 황주본, 성주본, 관북본, 관서본 등이 유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훈민가> 보급의

모두 서인·노론계 인물이거나 정철의 집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인물들이다.

정철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이이(李珥), 성혼(成渾) 등과 밀접한 교류를 맺었으며, 동서 당쟁의 와중에 이들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런데 정철은 선조 27년(1594)에 관직이 추탈되었다가,¹²⁾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철의 관직이 회복되었다.¹³⁾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이이의 대표 문인이다. 김장생의 문하로 그의 아들인 김집(金集)과 송시열(宋時烈) 등이 있는데, 정철의 비명을 송시열이 지었다. 정철의 맏아들로 요서(夭逝)한 기명(起溟)은 성혼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으며, 둘째인 종명(宗溟, 1565~1626)은 성혼에게 문학하였고, 넷째인 홍명(弘溟, 1582~1650)은 김장생과 김집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경민편』과 〈훈민가〉 보급을 제기했던 이후원은 본관이 전주로, 어머니가 황정욱(黃廷彧)의 따님이고, 부인은 사계 김장생의 손녀로 광산 김반(金槃)의 따님이며, 딸은 김석주(金錫胄)에게 출가하였고, 후부인 신씨(申氏) 소생의 딸은 박태보(朴泰輔)에게 출가했다. 『송강가사』를 엮는데 직접 참여한 이선(李選, 1632~1692)은 이후원의 둘째 아들인데, 처음 윤강(尹絳)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가 숙종 대에 〈권민가〉[〈훈민가〉] 보급을 주장했던 윤지선(尹趾善)의 누이이다.

한편 이후원의 장인인 김반의 셋째 아들 익겸(益兼)에게 만기(萬基), 만중(萬重)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만이인 만기의 딸이 숙종의 초비인 인경왕후이고, 만기의 둘째 아들인 진규(鎭圭)는 정철의 내손(來孫)인 소하(昭河)의 따님을 후부인으로 맞았다.

그리고 황주에서 『송강가사』를 간행한 이정하(李徵夏, 1656~1727)는 송강의 증손인 보연(普衍)의 사위이기도 하다.¹⁴⁾

이후원·이선·윤지선 등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진행한 『경민편』과 〈훈민가〉의 합편과 그 보급, 그리고 후손이 중심이 된 『송강가사』의 간행은 효종·숙종 대의 정철에 대한 신원운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2.2 <훈민가>의 보급과 한역

〈훈민가〉의 보급은 창작 당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부터 보급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강복중(姜復中, 1563~1639)이 정철의 〈훈민가〉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시조를 짓고 있다.¹⁵⁾ 〈훈민가〉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선조 13년(1580)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인조 12년(1634)에 〈훈민가〉를 구독하고 화답가 2수를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¹⁶⁾ 강복중은 초년에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 종효(宗孝)는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었다.

한편 숙종 5년(1679)에 수안군수로 부임한 이기하(李基夏, 1646~1718)가 〈훈민가〉를 번역¹⁷⁾하여 백성을 가르쳤고, 또 숙종 19년(1693)경에 제주목사가 되어서는 『경민편』과 〈훈민가〉를 묶어서 간행하게 하였다.¹⁸⁾

14) 李德壽, 『叔父知敦寧府事府君墓誌』, 『西堂私載』 권9, 『한국문집총간』 186(1997), 427~428쪽. 조운제가 『조선시가지사강』에서 이정하(李徵夏)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사엽 이후 이계상(李季祥)으로 적은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상(季祥)은 자(字)이고 이름은 정하(徵夏)이다.

15)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21쪽.

16) 심재완, 『청계공가사』,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109쪽.

17) 李德壽, 『工曹判書兼知訓練院事李公墓誌銘』, 『西堂私載』 권10, 『한국문집총간』 186, 455~459쪽.

논의와 『송강가사』에의 수합 사이에 놓인 일정한 시간의 차이와 그 경과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함께 그 의의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12) 『선조실록』 권57, 27년[1594] 11월 13일(정해).

13) 『인조실록』 권6, 2년[1624] 5월 29일(임오).

영조 46년(1770)에는 한익모(韓翼謨)는 『소학』과 함께 〈훈민가〉 보급을 주장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여러 도에 하유(下諭)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소학(小學)』 및 훈민가(訓民歌)를 외워 익히게 하였다. 좌의정 한익모(韓翼謨)가 말하기를,

“『소학』의 고강(考講)은 법의 취지가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하호 세민(下戶細民)에 있어서는 교도(敎導)할 방법이 없고, 속습(俗習)은 무지하여 윤리(倫理)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 상신 정철(鄭澈)은 이를 염려하여 훈민가를 지었는데, 모두 18장(章)이요, 그 내용은 민생의 일용 사물(日用事物)과 평범한 윤리에서 벗어 나지 않으니, 시골의 부녀(婦女)와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외우게 하여 감동, 분발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를 팔도에 신칙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외워 익히게 하면, 거의 모두 대의(大意)를 알아서 백성을 교화하여 양속(良俗)을 이루게 하는 방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컨대 『소학』의 고강과 아울러서 다 같이 신칙하소서.”

하니, 임금에 이 명을 내린 것이다.¹⁹⁾

또한 이경(李檠)은 〈역훈민가〉라고 하여 18수를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²⁰⁾

그리고 송시열의 8대손인 송달수(宋達洙, 1808~1858)도 〈훈민가〉 16수를 한역하였는데,²¹⁾ 그의 어머니는 연일정씨 치환(致煥)의 따님이다.

이상 『경민편』과 〈훈민가〉의 합편 과정과 〈훈민가〉 보급의 과정을 정리하면, 정철의 집안을 중심으로 문집을 엮으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송강가사』를 수습하려는 과정이 구체화되었고, 정철과 그 후손을 포함하여 사승 관계에 놓여 있거나 당파를 같이 하는 서인·노론계 인물을 중심으로 〈훈민

가〉 보급을 통하여 정철이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풍속을 교화하려고 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대	생평·정치적 변화	송강문집	〈훈민가〉 관련
1536(중종 31) 1580(선조 13) 1593(선조 26) 1594(선조 27) 1622(광해군 14)	정철 태어남 정철 강원도관찰사 정철 죽음 정철 관직 추탈	송강집 서(신흠)	〈훈민가〉 창작
1623(인조 1) 1624(인조 2) 1632(인조 10) 1633(인조 11) 1634(인조 12)	인조반정 정철 관직회복	송강집 후서(장유) 송강집 발(김상헌)	〈훈민가화답〉(강복중)
1656(효종 7) 1658(효종 9) 1674(숙종 즉위) 1677(숙종 3) 1679(숙종 5) 1681(숙종 7) 1690(숙종 16) 1692(숙종 18) 1693(숙종 19) 1698(숙종 24) 1747(영조 23) 1768(영조 44) 1770(영조 46) 1833(순조 33)	정철저서비판(유후상)	송강집중간발(송시열) 송강집속집발(송시열)	〈경민편〉 논의(이후원) 〈훈민가〉 논의(이후원) 〈훈민가〉 번역(이기하) 〈권민가〉 보급(윤지선) 〈송강가사〉 편(이선) 〈훈민가〉 간행(이기하) 〈송강가사〉 의성(호) 〈송강가사〉 성주(관하)

18) 위와 같은 곳.

19) 『영조실록』 권114, 46년[1770] 1월 14일(임진).

20) 『茅山亭遺稿』 권하,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참조.

21) 『守宗齋集』 권1, 〈訓民歌編辭〉

			<송강가사> 관서(설) <훈민가> 보급(한익모) <훈민가> 한역(송달수)
--	--	--	--

3. 〈훈민가〉의 구성과 그 의미

〈훈민가〉는 선조 13년(1580)에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목민관의 입장에서 백성을 향한 발화는 직접적인 발화가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발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산문을 통한 가르침이 마련되기도 하고, 노래를 통한 깨우침이 준비되기도 한다.²²⁾ 김정국의 『경민편』과 같이 화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난 뒤에 그와 관련되는 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철의 〈훈민가〉는 노래를 통한 깨우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대에나 〈훈민가〉 보급과 관련하여 〈훈민가〉의 내질에 대하여 교훈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후원(1598~1660)은 “시골 부녀자들로 하여금 이를 늘 암송하게 함으로써 감발되고 징계되는 바가 있게 하려고 하였습시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윤지선(1627~1704)은 “부녀들로 하여금 심상하게 외우고 익히도록 하여 사모하여 본받게 하는 바탕을 삼게”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철의 아들 정종명(1565~1626)은 「기암소록」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심상하게 외우고 익혀서 입에서 읊조리게 되면 사람의 정성을 감발하는데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기하(1646~1718)는 〈훈민가〉를 번역하면서 “백성을 가르친다.”라고 하였다.

〈훈민가〉 연구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시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언어적 소통을 분석하면서 일방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삶의 현실성을 고려한 언어 배열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경향이 짙다.²³⁾

〈훈민가〉의 경우 실천을 통한 정서적 감동과는 조금 다른 층위인 정서적 공감에 바탕을 둔 교화의 방향²⁴⁾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소학』이나 『효경』, 『경민편』 등이 정서적 공감의 집단적 체험을 자극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자의 마음의 태세”를 유발하거나,²⁵⁾ “강원도 백성 및 보편적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그들 사이에 관류하고 있는 인정 어린 어휘를 선택”²⁶⁾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시각은 바로 집단적 체험의 정서적 공감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의미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경민편』에 함께 수록된 〈훈민가〉의 구성을 보면, 부의모자(父義母慈), 형우제공(兄友弟恭), 군신(君臣), 자효(子孝), 부부유은(夫婦有恩), 남녀유별(男女有別), 자제유학(子弟有學), 향려유례(鄉閭有禮),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빈궁우환친척상구(貧窮憂患親戚相救), 혼인사상인리상조(婚姻死喪隣里相助), 무타농상(無惰農桑), 무작도적(無作盜賊), 무학도박무호쟁송(無作賭博無好爭訟), 무이악능선무이부탄빈(無

22) 驚民, 訓民, 勸民, 教民 등의 함의가 그 내포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주세붕의 경우 백성을 향한 직접적 가르침, 부로를 통한 간접적 가르침, 〈오륜가〉의 노래를 통한 깨우침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던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최재남, 「주세붕의 목민관 생활과 〈오륜가〉」,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216~226쪽.

23)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24) 최재남, 「체험시의 전통과 시조의 서정미학」, 『한국시가연구』 15집, 2004, 83~87쪽.

25) 김열규, 「한국 시가의 서정의 몇 국면」, 『동양학』 2집, 단국대, 1972, 14쪽.

26)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집, 진단학회, 1976;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430쪽.

以惡凌善無以富吞貧, 缺), 행자양로경자양반(行者讓路耕者讓畔, 缺), 반백자불부대(班白者不負戴) 등으로 18항목인데, 두 항목에 결이 표기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16수가 실려 있다. 이들 항목은 송나라 진양(陳襄)의 〈선거권유문(仙居勸諭文)〉에 실린 내용과 일치한다.

〈훈민가〉의 표현은 그 발화유형에서 화자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직접 명령하기도 하고, 청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선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가 실제 백성들을 향한 친밀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문을 통한 가르침보다 노래를 통한 깨우침을 택하면서도, 각각의 상황과 청자의 대상에 따라 발화의 장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 강도를 다르게 느끼게 한다. 단호한 명령으로 진술한 경우는 실제 자신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말로 여길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청유형의 진술을 사용하거나, 존칭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교술적 구성²⁷⁾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지의 발언이나 직접 명령을 택하는 경우이다. 형과 아우, 자식, 일반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면서 강제성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 독자나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의 실체가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하거나 자신은 이미 노래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른 긍정적인 방향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적 진술에 직접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감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닳먹음을 먹디마라(2) [형, 아이]

- 섬길일란 다허여라(4) [자식]
- 일흠뭇디 마오려(6) [간나히 스나히]
- 늑미오술 앓디마라, 늑미밥을 비디마라(14) [일반 사람]
- 상늑장디 흐디마라 송스글월 흐디마라(15) [일반 사람]

다음으로 존칭의 선어말어미를 활용한 명령의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나 조카와 아저씨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직접 명령을 한다기보다 권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상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관계의 층위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권유의 자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울훈일 흐자스라(8) [마을 사름들]
- 머훈일 다 닐러스라(11) [족해, 아자바]
- 호피메오 가자스라, 누에먹켜 보자스라(13) [마을의 농사꾼]

한편 늙은이에게는 높임말을 쓰고 있다. 노래로 불리는 상황 때문에 문어에서 볼 수 있는 높임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익명의 노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종결에서 “지물조차 지실가”라고 하여 존칭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는 것도, 대상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정서적 공감을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짐프러 나를주오(16) [늘그니]

이와 함께 화자 또는 주체의 의지나 실천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는 “흐노라”와 결합된 선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주체가 제시된 내용의 진리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로 볼 수 있어서, 화자로 설정된 주체의

27) Don Fowler, 『The Didactic Plot』, (ed) Mary Depew & Dirk Obbink, 『Matrices of Genre—Authors, Canons, and Society』(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205~219쪽.

확고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 잇썌인가 호노라(4) [효도]
- 뵈셔가려 호노라(9) [늙은이를]
- 돌보고져 호노라(12) [족해와 아자바]

이와는 달리 부정적인 상황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경우에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눈흘기려 호노(5) [망녕의 썌]

이렇듯 〈훈민가〉의 구성은 목민관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을 주체와 대상, 그리고 구체적 실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별적 구성이 일방적 명령이나 직접적 가르침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 주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그 맥락 안에서 정서적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술적 구성의 다양한 장치가 〈훈민가〉가 지닌 내질이 라고 할 수 있다.

4. 작가와 작품의 효용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당파가 간여하는 경우 그 편향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글과 연관시킬 때, 글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마련되기도 한다. 『맹자(孟子)』 「만장 하(萬章下)」의 “그 시를 외며, 그 글을 읽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라는 관점이 그것

인데, 따지고 보면 시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사람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경민편』을 엮은 김정국에 대한 평가는 김정국 당대에나 후대에나 별 차이 없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삶의 태도와 실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관인으로서 보였던 온건한 태도와 권력에서 밀려나서 재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보였던 삶의 자세가 한결같았기 때문에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민편』은 바로 이러한 그의 삶의 자세가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다)-1은 김정국이 즐기에 나타난 사신의 평가이고, (다)-2는 후대 증시를 내리기를 주문하는 평가이다. 200여년의 시간적 차이에도 평가의 준거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1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김정국(金正國)이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김정국은 안국(安國)의 아우이다. 강정(剛正)하고 방직(方直)하며 나라를 자기집처럼 근심하였다. 선을 좋아하되 지나치지 않았고 악을 미워하되 심하지 않았으므로 기묘년에 패할 때에도 패한 것이 심하기에 이르지 않았고, 조정에 돌아오게 되어서도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꺼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의 죽음을 들었을 때에 원근(遠近)이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애석해 하여 슬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정국은 마음을 쓰는 것이 순정(純正)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였으며 곤궁하여도 의리를 잃지 않고 현달하여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정국은 성품과 도량이 온순(溫醇)하고 일생 동안 처사를 모두 순리대로 하였으니 균자다운 사람이다. 그 명망이 그의 형에게 미치지 못하는 듯하나, 실은 오히려 더하기도 하다. 전에 사림(士林)의 화(禍)를 만나 물러가 살던 20여 년 동안에 가난하기가 상 사람과 같았으나, 끝내 산업을 일삼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으므로, 문생(門生)·제자가 늘 자리에 차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마쳤을 때에는 서로 앞다투어 와서 빈소(殯所) 곁에서 곡하고 조석으로 제전(祭奠)을 모시고 상여가 나가고서야 흠어졌으며, 가난한 가운데에서 힘을 다하여 밀천을 만들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후 심상(心喪)하는 자도 있었으니, 거의 옛사람의 풍도가 있었다.²⁸⁾

(다)-2

참찬관 유정(柳廷)이 아뢰기를,

“선정신 김정국(金正國)은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이 선정신 조광조(趙光祖)와 실제로 서로 견주는데, 다만 벼슬이 정경(正卿)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 아직까지 증시(贈諡)하는 은전이 없으니, 진실로 개탄스럽고 애석합니다.”

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묘당에 물어서 품처(處)하게 하였다.²⁹⁾

그런데 정철에 대한 평가는 당대이나 후대이나 대립적인 시각을 보인다.

(라)-1은 당쟁의 와중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평가인데, 성격과 주벽을 예로 들어 배타적인 자세를 보인다. (라)-2는 줄기에 대한 사신의 평가인데, 성품, 행동, 인심 등을 예로 들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라)-3은 인조 반정 이후 신원에 대한 기대를 말하면서 내린 평가인데, 절개를 지킨 점은 평가하면서 덕이 모자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하면 개략적으로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격, 개인적으로는 술을 좋아하면서 구속받지 않는 태도, 남에 대한 배려가 모자라는 덕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포용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음에 비하여,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입장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훈민가〉를 정철의 성품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면 쉽게 연결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1

정철(鄭澈)이 본디 사납고 강박한 성품으로 당원(黨援)의 계책을 실행하였다. 처음에는 심의겸과 좋게 지내어 청반(淸班)을 더럽혔고, 또 이이에 의지하여 지위가 이공(貳公)에 이르렀다. 전후로 체결하여 권세가 치열해지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몰래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등 방자하고 꺼림 없음이 극도에 이르렀다. 더구나 주색에 빠져 몸가짐이 미친 자와 같았으므로 관청의 일은 여사(餘事)로 여기면서도 매양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탄핵하여 심지어 총마(驄馬)의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성명께서 밝게 통촉하시어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산반(散班)으로 물러갔지만 원한은 골수에 사무쳤다.³⁰⁾

(라)-2

인성 부원군(寅城府院君) 정철(鄭澈)이 졸(卒)하였다. 철은 논박을 받고 강화(江華)에 가 있다가 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철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自招)하였다. 최영경(崔永慶)이 옥에 갇혀 있을 적에, 그가 영경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그가 이미 국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철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마침내 죽게 만들었으니 가수(假手)했다는 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일에 대응하는 재간도 모자라 처사(處事)가 소루하였기 때문에 양호(兩湖)의 체찰사(體察使)로 있을 때에는 인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는 전대(專對)에 잘못을 저지르는 등 죄려(罪戾)가 잇따랐으므로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³¹⁾

(라)-3

사신은 논한다. 정철은 자기 몸을 단속하여 청백하게 지냈으니 깨끗하게 지킨 그 절개는 세속에서 빼어났다 하겠다. 따라서 비록 덕이 후종하지 못해 공보(公輔)의 그릇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또한 군자에 속하는 인물이라

28) 『중종실록』 권95, 36년[1541] 5월 20일(을사).

29) 『영조실록』 권31, 8년[1732] 1월 21일(기묘).

30) 『선조실록』 권19, 18년[1585] 4월 16일(정사).

31) 『선조실록』 권46, 26년[1593] 12월 21일(경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축년 역옥(逆獄)이 일어났을 때에 추관이 되어 공평하게 결옥(決獄)을 하려 했는데, 최영경이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는 바람에 끝내 살인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자신이 추관이 된 입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고 보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살했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는다면 또한 공론이 못되는 것이다. 새로이 교화를 펴는 시점에서 과거의 억울한 일을 시원스럽게 씻어주는 은전을 대대적으로 내리면서도, 당론에 저촉될까 염려한 나머지 신원하는 명을 오래도록 지체시키고 있으므로 공의가 자못 우울해 하였다.³²⁾

이러한 평가에 직면하면서 〈훈민가〉를 대하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훈민가〉에 대하여 우리는 서인·노론계 인물들이 이해하고 보급하기 위해 애쓰고자 했던 시각으로 〈훈민가〉를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훈민가〉를 다르게 읽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실제 정철이 목민관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확인하면 〈훈민가〉의 진술이 목민관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절실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시를 쓴 사람이 그 안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으며, 그의 말들이 확실한 삶의 연관성을 가지는 체험에 바탕을 두고 쓴 체험시와는 다른 층위에 〈훈민가〉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면, 훈민³³⁾과 목민관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정서적 공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민편』의 간행이 김정국이 목도한 다급한 현실에서 촉발된

것³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훈민가〉는 꼭 그렇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강원도관찰사의 책무를 맡아서 지은 〈관동별곡〉이 그 실상은 “그의 진정한 모습은 무의식 속에 잠적해 버리고, 가면의 얼굴은 의식적 지향만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의 기대나 여망에만 반응”³⁵⁾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을 향한 발화에서 노래를 통한 깨우침을 추구하려 할 때 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면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교술적 구성이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장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해의 저변에는 작가³⁶⁾의 빼어난 언어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놓여 있기도 하다.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훈민가〉의 작시에 놓인 가면의 통과와 다르게, 〈훈민가〉 보급의 과정에서는 그 가면의 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실체에 주목하여 오히려 작가의 개성이나 인격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집단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집단적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훈민가〉 보급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이 지닌 효용성을 통하여 작가에 대한 호감을 키우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훈민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래를 통한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예

32) 『인조실록』 권1, 1년[1623] 4월 11일(경오).

33) 훈민 정책의 핵심은 명나라의 태조가 말한 훈민육조(訓民六條)의 “부모에게 효순(孝順)하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자손들을 가르치고, 각자의 생업에 안정하고, 비위(非爲)를 저지르지 말라.”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황덕길, 『순암선생행장』 참조.

34) 최재남, 『〈향촌십일가〉의 성격과 김정국의 고양생활』,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81~84쪽.

35)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관동별곡〉 평설』,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37쪽.

36) 작가(writer)의 개념은 시인(poet), 저자(author) 등의 개념과 견주어 살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인격(personality), 개성(individuality), 가면의 얼굴(persona) 등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술 작품이 가지는 효용성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인이거나 작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키는 일은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맹자』에서 말한 바, “그 시를 외며, 그 글을 읽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라는 진술은,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의 비판적 태도나 같은 입장에 선 사람들의 옹호적 태도와는 별도로, 문학의 효용성을 통한 사람의 이해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소결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민편〉과 〈훈민가〉가 한데 엮여지면서 〈경민편〉 보급과 〈훈민가〉 보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고, 〈훈민가〉 보급 과정에 서인·노론계 인물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훈민가〉의 구성을 확인한 결과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을 주체와 대상, 그리고 구체적 실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하는 이른바 교술적 구성을 통하여 정서적 공감을 확보하려고 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훈민가〉 보급의 과정은 실제 〈훈민가〉 구성의 장치와는 다르게, 노래를 통하여 노래의 작가에 대한 친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서인·노론계 인물의 집단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예술 작품인 〈훈민가〉를 노래로 부르면서 노래에서 느낀 정서적 감동을 바탕으로 해당 작가에 대한 호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의 큰 흐름도 읽어낼 수 있다.

예술 작품이 지닌 효용성을 통하여 작가에 대한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작가에 대한 호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도를 확인한 본 연구의 성과는, 기문을 중심으로 조상이 지은 연시조 향유를 통하여 집안의 자긍심

을 높이고 실천적 생활문화의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몇몇 사례에 대한 기존의 검토³⁷⁾와 연계하여, 앞으로 시가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시사했다는 의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경민편』(국립도서관 소장)
- 『광해군일기』
- 『선조수정실록』
- 『선조실록』
- 『송강가사 : 부언사』(국립도서관 소장)
- 『숙종실록』
- 『영조실록』
- 『인조실록』
- 『현종실록』
- 『효종실록』
- 김정국, 『사재집』, 『한국문집총간』 23(민족문화추진회, 1988)
- 송달수, 『수종재집』(국립도서관 소장)
- 이덕수, 『서당유고』, 『한국문집총간』 186(민족문화추진회, 1997)
- 이선, 『지호집』, 『한국문집총간』 143(민족문화추진회, 1995)
- 정양, 『포옹집』, 『한국문집총간』 101(민족문화추진회, 1993)
- 정철, 『송강집』, 『한국문집총간』 46(민족문화추진회, 1990)
- 정호, 『장암집』, 『한국문집총간』 157(민족문화추진회, 1995)
- 정홍명, 『기암집』, 『한국문집총간』 87(민족문화추진회, 1992)

청구대학 국어국문학회, 『고산·노계·송강전집』, 청구대학 출판부, 1961.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37) 최재남, 「사람의 생활문화로서의 시가활동」, 『고전문학연구』 별집 8호, 한국고전학회, 2001.

- 김병국,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김사엽, 『정송강연구』, 계몽사, 1950.
김홍규, 『송강시의 언어』, 고려대출판부, 1993.
방종현, 『송강가사』, 정음사, 1948.
신경림 외, 『송강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심재완, 『경민편과 송강가사』,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조윤제, 『조선시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최재남, 『체험시의 전통과 시조의 서정미학』,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
가학회, 2004.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Don Fowler, 『The Didactic Plot』, (ed) Mary Depew & Dirk Obbink,
『Matrices of Genre—Authors, Canons, and Society』(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bstract〉

A Study on the Spread of the 〈Hunminga(訓民歌)〉 and Its Significance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heck the process of the spread of the 〈Hunminga(訓民歌)〉 and to explain its significance.

The 〈Hunminga〉 was composed by Jeongcheol(鄭澈, 1536~1593) in his provincial governor of Kangwondo at 1580. After this work was produced, the standing of his family and the Party of Seoin·Noron(西人·老論) took much pains to spread this work. A tendency of this constant efforts is to redress a grievance being divested of a government office and court rank.

The 〈Hunminga〉 is composed of 16 poems or 18 poems. Every work is discoursed as smooth as possible. Author or speaker, Reader or addressee whoever is considered very carefully. So this didactic plot is to be prepared to the emotional sympathy based on collective experience. So we are familiar to read and song this work. And we are going to receive the author of the 〈Hunminga〉 as a well-wisher as possible.

I make manifest several view points as following. First, every literary work is to be understood in historical context not only its

day but also the future generation. The gap of this understanding is filled up through exact reading and objective research. Second, When we read and appreciate every literary work cheerfully,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author of every literary work as good as possible. And third, A compared study between the personality of author and the usefulness of every literary work is to be continued in the Siga research.

Key words : 〈Hunminga〉, spread, redress a grievance, didactic plot, emotional sympathy, collective experience, historical context, personality, usefulness.